

담양군 “여름맞이 포토존에서 추억 남기세요”

여름 느낌 가득 포토존 설치 관광객 불거리 제공
다음달 16일까지 포토존 연계 SNS 참여 이벤트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쳐있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기 위해 여름을 주제로 한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의 추세가 소규모로, 휴식과 힐링이 중시되는 형태로 바뀌어감에 따라 담양의 숨은 명소를 알리고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등 주요 관광지로의 관광객 집중을 예방하고자 야외 공간에 포토존을 설치했다.

포토존은 4개소에 설치됐으며, 영산강문화공원은 휴양지 느낌의 포토존으로 꾸미고 어린이 프로방스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해 튜브로 만든 트리, 터널, 씬터로 조성, 대나

무박물관과 중앙공원은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여행지에서 특색 있는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올려 공유하는 젊은 세대의 맘을 사로잡아 담양의 새로운 모습이 많이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담양 왔섬머’를 주제로 SNS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는 포토존 방문 인증샷을 찍어 이벤트 공식 인스타그램(@

whatsummer_dy)을 태그해 군이 지정한 1개 이상의 해시태그(#담양#왔섬머#담양여름)를 넣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면 된다. 매주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의 분산을 통한 좀 더 여유로운 관광환경과 다양하고 새로운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지친 마음에 위로와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관광지에 철저한 방역관리와 관광객의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관광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소액 기부 확산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한 걸음 더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은 지역 교육 혁신을 바라는 소액 기부자들의 후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18일에 설립된 재단은 학습과 성장이 순환하는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4대 전략과제에 따른 28가지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성장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부분의 예산을 지자체 출연금과 보조금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익법인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9월부터는 기부금을 접수하며 사업 재원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단의 비전과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공감을 확산시키고, 지역의 미래를 모두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다행히 재단이 추진한 교육정책의 취지와 성과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고, 그 결과 2021년 상반기부터 소액 기부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2021년 2분기에 총 223명의 기탁자가 89,490,000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이 중 소액기부자로 분류되는 백만원 미만 기부자가 210명으로 전체 기부자의 94%를 상회하고 있다.

소액기부 내역을 면면히 살펴보면 70명이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에 써달라며 3,110,000원을 기부했고, 73명은 장학금에 사용해달라며 4,140,000원을 기부했다. 또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11명의 기부자가 580,000원,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에 56명의 기부자가 3,660,000원을 기탁했다.

재단 측은 소액 기부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반색하고 있다. 액수를 떠나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역 교육에 동참한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주신 소액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많은 분들께서 재단의 비전에 공감하며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 큰 힘이 된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은 누구나 성장의 기쁨을 맛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 곡성교육생태계 조성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곡성군미래교육재단(061-884-8212)에 문의하면 된다.

곡성=양혜영기자



구례군, 여순 10·19 특별법 통과 감사패 전달

구례군·유족회 공동명의로 소병철·서동용 국회의원에게 전달

구례군은 16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김순호 구례군수와 여순항쟁전국연합유족회 이규중 회장이 공동명의로 소병철 국회의원과 서동용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전달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원을 최소화하여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규중 회장은 “현대사의 비극을 해결하는데 단초 역할을 해주신 두 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여순항쟁 민주평화공원을 구례에 유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법안 발의와 통과에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특별법이 통과가 된 만큼 후속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 왕곡면 청년회, 코스모스 길 조성

동서연결도로 농업기술센터 ~ 행전리 4km구간

나주시 왕곡면 청년회원들이 먼 소제지와 양산을 잇는 동서연결도로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했다.

왕곡면은 최근 민·관이 함께하는 꽃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년회원 30여명의 참여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에서 행전리 방향 4km구간에 코스모스를 식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형복 청년회장은 “가을의 문턱에서 활짝 피어날 코스모스를 보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위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지

역 동서화합과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참여해준 청년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강득원 왕곡면장은 “농촌일은 잠시 미뤄두고 무더운 날씨 속에 트랙터까지 동원해 꽃길 조성에 참여해준 청년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동서연결도로에서 피어난 코스모스가면민 화합의 상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친환경·에너지 절약형으로 변신한 화순수영장...이용자 ‘호평’

대대적인 보수 공사 ‘새 단장’

화순을 소재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이하 화순수영장)이 이용자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벌였고, 공사와 코로나19 방역으로 장기 휴장하다 지난 6일부터 재개장했다.

25m·6레인 성인 풀과 1m·2레인 보조 풀을 갖춘 화순수영장은 2011년 7월 개장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보수 공사를 했다.



수영조 소재를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소금물 전기 분해 살균 장치’와 제습 공조기 등을 설치해 친환경 수영장으로 탈바꿈했다. 효율이 낮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설비를 친환경 고

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면서, 수질을 크게 높이고 눈 따가움 등을 겪었던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안전한 수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화순=박순철기자

#방콕탈출 #힐링타임
#안전한영화관람

함평

자동차극장

- GRAND OPEN -

1관 19:20~ 21:45~
2관 19:00~ 21:30~

코로나19 걱정없이
매일저녁2회상영

※ 매주 월요일 휴관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

예매 www.hpcc.co.kr

문의 061)320-2225